



4면

전북·대구, 우수 교육정책 공유

전주매일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음 5월 26일) 제33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2일 진안 신약초타운에서 열린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심민 전북 시장(가장 오른쪽)을 비롯한 14개 시·군·군수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세계 잼버리 성공개최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도·시군, 전북발전 협치 재확인

도내 광역·기초 단체장들 '제2차 정책협의회' 열어

내달 개최 새만금잼버리 붐업 위한 협조사항 논의 진안 '빠망' 지원 등 시군 자체 추진 우수시책 발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상생 발전 협약 체결도

민선 8기 들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두 번째로 만나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2일 진안 신약초타운에서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심민 전북 시장(가장 오른쪽)을 비롯한 14개 시·군·군수가 모두 참석해 가운데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도·시군 정책협의회 개최 이후 1년 만에 도내 단체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에 뜻을 함께 했다.

또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면서 시·군, 안전대책, 프로그램 등 막바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영의활동 과정 지원, 홍보 등 잼버리 붐업을 위해 시·군과 협조사항

을 논의했다.

이어, 시·군별로 시·군 주도의 현상상황실 구축·운영을 통해 질서있는 영의과정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 현수막 및 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일일방문 프로그램의 참여 홍보방안을 설명하고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을 전 시·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우수시책으로 기업과 공무원을 매칭한 뒤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정읍 '1기업 1담당제'와 치매어르신 인지강화를 위해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대용 인공저장 '빠망' 돌봄인형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전북도·시·군 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도 체결됐다.

이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며 먹거리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로컬푸드 발전자인 전북도가 먹거리 정책 선도지역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 위원회 출범,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먹거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자는데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생산·유통·소비 연계 강화, △지역먹거리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먹거리 보장 강화, △대도시 관계시장 창출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선 8기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잼버리 성공개최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유치 지원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

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며,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RIS(지역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

도는 8월 4일까지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가 RIS(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RIS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율과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그 수요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2023년도 자율과제 사업비는 총 64억 원으로 사업에 따라 1~3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RIS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추가 및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시군과 도내 대학간 협업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시군은 과제당 동일대학 또는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대학은 여러 시군과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평가 일정은 8월 중에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8월 25일(예정)에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8월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K-POP부터 불꽃놀이까지

잼버리 공식 행사 '풍성'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식행사, 영내의 과정활동 및 일일방문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잼버리 공식행사는 개·폐영식 문화교류의 날, 특별활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8월 2일 개영식과 11일 폐영식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서막과 끝을 장식하는 행사로 K-컬처·K-댄스 공연, 드림오케스트라 연주, KBS 국악관현악단 공연의 식전 행사와 드론라이트쇼, 불꽃놀이, 축하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8월 6일 열리는 문화교류의 날에는 세계 각국의 종교 행사와 각 회원국들의 전통 공연 블랙 이글 에어쇼 및 특수부대 고공 낙하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국내 정상급 K-POP 가수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영내 프로그램은 개척물 만들기 미로탈출, 팻목뎀들기 등 48종 143개이고 과정활동 참여 시 지비츠 패치를 지급해 참가자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자연,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의 프로그램은 부안 직소천 수상활동, 익산 왕궁리 유적지 야행, 고창 선운사 템플스테이 등 42종 6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외 참가자들에게는 전북의 우수한 관광 자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영의 프로그램은 시군에 현장운영부서를 설치해 대규모 이동에 따른 응급체계를 마련해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군 운영요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영의 과정 활동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지원하게 된다.

세계잼버리 참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잼버리당 일부 구역(새만금 델타)에서 일일방문 프로그램이 8월 3일부터 10일까지(문화교류의 날 제외) 기간 동안 전시·홍보관, 공연 프로그램, 푸드하우스, 기념품샵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내·외 과정활동 등 프로그램 구성 준비 마쳐 방문객 위한 전시 등 다채

특별활동으로는 국가별 대표 청소년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잼버리 포레스트' 프로그램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에서 열릴 예정으로 새로운 땅 새만금에 2천주의 나무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의 미각을 자극할 '새만금 빅디너(치킨 요리 활동 및 경연)'와 'K-FOOD 떡볶이 데이'도 펼쳐진다.

이처럼 이색적인 잼버리 특별활동을 통해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정활동 프로그램은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되며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잼버리야영장 내·외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성했다.

단, 8월 6일 문화교류의 날은 제외된다. /김재훈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희망의 대전환 1년

전북교육 힘차게 나아갑니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

- 내년까지 학생 스마트기기 100% 제공
- 미래교육캠퍼스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초학력 책임제

- 기초학력 진단검사 전면 실시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 (교실-학교-학교밖)

작은학교 살리기

- 농촌유학 활성화
- 시·군간 광역형 공동통학구 확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 전북학생의회 출범

학생 해외연수 확대

- 국제교류 수업학교 운영
- 학생해외연수 약 2,500명 실시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